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정XX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오사카
파견대학	하고로모 대학	파견기간	19년 2학기 - 20년 1학기
귀국여부	귀국함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하고로모 대학은 오사카 타카이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간사이 공항으로부터 전철로 약 30-40분 거리입니다.</p> <p>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건물이 세 채 밖에 없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만합니다.</p> <p>1호관은 주로 강의실이 있습니다. 1호관과 3호관은 이어져있는 한 건물입니다. 3호관은 컴퓨터실과 교수님 연구실이 많습니다. 교환학과를 현대사회학과로 정하셨다면 딱히 불일은 없는 공간입니다. 주로 1호관과 2호관에서 수업을 듣게 되실 겁니다. 2호관은 지하에 주로 세미나수업(ゼミ)이 이루어지는 강의실이 있고 그 윗층은 도서관, 3,4층은 강의실입니다.</p> <p>2호관 맞은 편에 교학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1층에 교학센터와 학생홀이 있고 3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은 식권을 뽑아서 원하는 메뉴를 시켜 먹는 곳과 빵 파는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메뉴는 덮밥, 정식, 면 등 종류는 꽤 되지만 나중엔 한 두 메뉴만 시키게 되실 겁니다. 맛은 평범합니다. 나머지 층은 주로 학교 관계자 분들이 쓰시는 층입니다.</p> <p>전체적인 분위기는 고등학교 같습니다. 강의실도 딱 교실만 합니다. 수학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외국인유학생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p>

2018-2학기
수업

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航空ビジネス論(항공비즈니스론) – 수업은 PPT를 보면서 나누어 준
유인물에 빈칸 내용을 채우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매 수업이 끝난 뒤,
소레포트(小レポート)에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야 합니다.
교수님이 항공사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계셔서 현장 얘기를 자주
해주십니다. 항공 관련해서 흥미가 있으시다면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日本語表現法2(일본어표현법2) – 하고로모 대학의 유학생은 모두 1학년 때
수강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개학 초에 간단하게 시험을 쳐서 A-D로 나눠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A반은 영상을 보고 영상 내용을 적는
수업이 많았다고 합니다. C, D반은 주제를 정해 간단한 글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환은 타 학생들과 같은 입장이 아니어서
인지 사실 안들어도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과목은
떨어졌습니다.

国際メディア論2(국제미디어론2) – 유민물의 빈칸에 교수님이 수업에
적어주는 내용을 적으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수님이 참고자료를 많이
들고오시는 편이라 내용이 약간 장황할 순 있어도 이해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미디어의 발전이나 영향 등에 대해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
알려주십니다. 국제사 지식이 있으면 이해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예비로 내주신 10문제 중 약 5문제 정도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암기에 자신이 있으시면 가장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들었던 과목 중 가장 내용도 알차고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導入ゼミナル2A(도입세미나2A) – 교수님 별로 수업이 다 다릅니다. 저는
金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정하신 사례나 기업에 대해
2번의 팀플과 1번의 개인 PPT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들 생각보다
대충해오기 때문에 본교에서 발표할 때처럼 힘줘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환학생은 재미 수업은 안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시험은
업습니다. 재미 담당 선생님이 학생 관리도 일부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두시면 여러가지 여쭙보기 편합니다.

経済学入門(경제학입문) – 국통 1학년 수업인 경제학개론보다 훨씬 수준이
낮습니다. 다 알고있는 내용을 배웁니다. 담당 교수님인 金선생님은
한국어도 가능하셔서 질문하면 한국어로 잘 알려주십니다. 시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하루 전에 몇 번 훑어보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추천합니다.

経営学入門(경영학입문) – 유학생들만 듣는 클래스 입니다. 그룹 토론
수업이나 교수님의 이론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본교 1학년 수업인
경영학개론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p>시험은 교수님이 교재 페이지별로 시험에 낼 개념을 짚어주십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수업을 거의 안들어서 면학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안좋은 점은 없습니다.</p> <p>観光地理1(国内)(관광지리1 국내) – 일본 내의 관광지에 대해 배웁니다. 일본 내 지명 등이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과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교재 내용 읽기를 많이 시키십니다. 저는 고유명사, 지역명이 많아 읽기가 힘들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시험은 교수님이 나올 문제를 전부 짚어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p> <p>観光地理2(国外)(관광지리2 국외) – 여러 나라 관광지와 나라의 특성에 대해 배웁니다. 내용이 정말 쉽습니다. 그닥 유익한 수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단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p> <p>国際協力論(국제협력론) –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 다양한 조약, 국제적 문제 등 여러 주제에 대해 배웁니다. 매 수업 교수님이 정한 주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적어 발표를 해야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어 흥미로운 수업이었습니다. 시험은 없습니다.</p>
2019-1학기 수업	<p>코로나의 여파로 전부 zoom 수업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실제 현장수업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販売管理論 2 A(판매관리론) – 배포해 주시는 유인물 대로 교수님이 설명하며 수업이 진행됩니다.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교의 공급사슬관리 수업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험 전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수업내용을 정리해주시는데 이 때 시험내용이 거의 다 나옵니다. 추천합니다.</p> <p>マーケティング論(마케팅론) – PPT를 보며 교수님 수업을 듣고 당일까지 소레포트를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레포트는 교수님이 정하신 동영상이나 기사 등을 읽고 수업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시험은 레포트로 대체되었습니다. 수업 내용이나 소레포트와 관련한 10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업 내용과 소레포트를 잘 정리해 놓는게 좋습니다. 추천합니다.</p> <p>専門英語 1 (전문영어) – 사실 재미수업이라 안들어도 되는데 모르고 등록했습니다. 교수님이 매주 여러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는 숙제를 주시고 수업 때 그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p>

한 중고등학교 수준의 영어수업입니다. 일본인 친구들이 영어를 못해주기 때문에 영어로 말할 때 부담이 덜합니다. 본교 필요인 영어수업보다 훨씬 쉽습니다. 교수님이 한국 유학 경험이 있어 한국말도 유창하시고 관심도 많으십니다. 그래서인지 타국 유학생에 비해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한국 관련 번역 일이나 행사 참여 부탁을 많이 하십니다. 시험은 없습니다.

人的資源管理論(인적자원관리론) – 인적자원에 대해 기업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자원으로 보고 도구처럼 효율적이게 쓸 방법을 찾는다고 보단 기업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좋은 효율이 나올지, 사람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직장을 고르고 일하는지 등에 대해 배우는 느낌입니다. 시험은 없었습니다. 추천합니다.

現代メディア分析(현대미디어분석) – 저번 학기의 국제미디어 분석 수업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PPT를 통해 수강하고 수업 마지막에 교수님이 내신 간단한 세네가지 문제에 대해 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매체가 끼치는 영향, 문제, 매체관련 국제조약 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中川 교수님의 수업은 다 알차서 좋습니다. 시험은 레포트로 대체되었습니다. 추천합니다.

発達心理学(발달심리학) – 전공과 상관없어도 제가 듣고싶어서 들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사람의 발달 과정과 그에 따른 신체와 심리적 특징, 변화 등에 배웁니다. 재미는 있는데 말이 좀 어려웠습니다. 매주 퀴즈 과제가 있었고 시험은 오지선다였습니다.

中小企業論(중소기업론) – 마케팅론 수업 교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일본 중소기업 사례가 굉장히 많기 나와서 흥미로웠습니다. 마케팅론과 같은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험은 레포트로 대체되었습니다. 추천합니다.

中国語1(중국어) – 중국어를 배우는데 교재나 교수님의 설명이 한국인 입장에선 약간 불친절합니다. 한자를 다 알고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자 뜻 설명을 잘 안해줍니다. 수업 자체는 만족스러웠으나 시험 당일 시험 시작 2시간 전에 갑자기 시험이 취소되고 인터넷 시험으로 대체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国際観光論(국제관광론) – 여러 나라 관광지에 대해 소개하고 관광지 역사, 특징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과제는 없었고 시험은 레포트 2개, 발표 1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p>유학생은 가이단스라는 안내수업에 매 학기 참여해야 합니다. 사실 안들어도 큰 지장은 없지만(깜빡하고 안들었음) 들어두는게 좋습니다.</p> <p>교수님들이(특히 위의 전문영어 수업을 진행하신 宮武愛子교수님) 한국-일본 교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라고 많이 권하십니다. 공지사항에도 자주 올라오니 자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p> <p>저는 일본 고등학생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보다는 KPOP에 관심이 많았습니다.</p> <p>교환학생 관리는 교학센터의 大島さん、マッケンジーさんが 담당하고 계십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겨울은 정말 안춥습니다. 우리나라 11월 정도의 날씨가 계속 유지됩니다. 저는 1-2월에도 항공점퍼 하나만 입고다녔습니다.</p> <p>대신 여름이 정말 덥습니다. 햇빛이 아프고 습도가 높습니다. 한여름은 매일 35도 이상을 유지합니다.</p> <p>유독 우리나라보다 그늘이 없어서 밖에 나다닐 때 힘듭니다. 일본에서 열사병 사망자가 많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p> <p>여름에 외출할 때, 탈수랑 열사병 조심하시고 드럭스토어에 파는 소금캔디 같은 거 복용하시면 좋습니다.</p>
안전	<p>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새벽에 편의점 다녀와도 위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로등 수가 적어서 밤거리가 많이 어두우니 골목에서 차조심하시고 인도로 다니는 자전거 조심하세요.</p> <p>코로나에 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 보다 더 방역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마스크 끼시고 조심하세요.</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 숙소(<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p> <p>저는 中山ビル에서 생활했습니다. 학교로부터 도보 30분, 자전거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말이 기숙사지 고시원 같은 느낌입니다. 中山라는 건설회사가 1,2층에 위치에 있고 3층에 에스테틱 샵, 4층이 유학생들이 쓰는 층입니다. 일반 기숙사 같은 점호나 통금은 없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분리수거가 한국보다 복잡한 편이니 잘 지키시고 하자있는 방이 많은데 그때그때 바로 말하세요.</p>
식사	<p>학교 Meal Plan (<input type="radio"/>) 학교식당 개별이용 (<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식당 (<input type="radio"/>) 직접 요리 (<input checked=""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점심은 주로 학교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식권기에 돈을 넣고 메뉴를 선택해서 식권을 받은 다음 식대에 내고 기다리면 됩니다. 번호시스템이 아니라 '무슨 음식 나왔습니다~'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앞에서 기다렸다가 눈치껏 가격가야합니다. 저는 카츠동이 제일 맛있었습니다.</p> <p>저녁은 근처 마트인 おくわ와 業務ス-パ-에서 구입해 요리해 먹거나 편의점을 이용했습니다. 요리할 의향이 있으시면 IH전용 팬, 냄비를 가져오시거나 장만하시는게 좋습니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저는 중고로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자전거 없으면 힘듭니다. 학교 근처, 기숙사 근처에 버스 안다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마을버스 없습니다. 1년 있으실거라면 자전거 하난 구비하시는게 좋습니다.</p> <p>교통카드가 없으면 일일이 전차표를 뽑아야하므로 하나 사시는게 편합니다. 보통, 여러 노선을 환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혜택은 그다지 없습니다. 일본은 노선이 달라지면 환승 적용이 안됩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약 5만엔	출국할 때는 얼마 안들었는데, 입국할 때는 코로나의 여파로 가격이 오르고 몇 달 전에 예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일주일 전에 예약했더니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Fees	<p><i>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i></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저는 전부 장학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보험료	국가보험은 9월에 도착했다면 10월부터 다음 해 3월 정도까지 납니다. 보험금 전액이 다달이 나뉘어진 상태의 청구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시청에 가서 한 번에 다 낼 수도 있고 다달이 낼 수도 있습니다. 한달에 2천엔 대 입니다. 밀리면 소정의 추가금이 붙습니다.	국내 보험을 들었습니다. 학교를 통해 기숙사 건물 화재보험도 들었습니다. 사실 다시 일본에 올 생각이 없다면 다 안내고 돌아가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올 경우 누락된 금액이 다시 청구된다고 합니다.
숙소	매달 2만5천 엔	담당자 설명이 가장 정확합니다. 나카야마는 집세와 별도로 전기, 수도, 가스비 등을 지불해야합니다.

		원피스는 관리비까지 합쳐서 5만엔입니다.
식비	한달에 약 2만엔	저는 같은 기숙사에 사는 친구와 식대를 나눠냈습니다. 외식을 일주일에 세네번 정도 자주 한 편입니다.
교통비	-	거의 자전거를 이용했기 때문에 멀리 놀러나갈 때를 제외하곤 교통비가 들지않았습니다.
책값	약 8천엔	저는 다른 한국 교환학생과 책을 공유했어서 대부분 반값만 냈습니다. 책은 한 학기에 세 권 정도 구매하게 될 것 입니다.
기타1	택배비 약 4만엔	일본에서 짐을 보낼 때 우체국 방문 택배를 이용해 보냈습니다. 25kg 1박스, 약 10kg 2박스, 약 2-3kg 1박스 EMS로 보내서 약 4만엔 지출했습니다.
기타2	전기세, 가스비 한여름 한겨울엔 약 1만엔, 평소엔 약 4만엔	한여름에 한 달 동안 에어컨을 끄지않고 켜둘 때 2만엔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누진세 매기는 기준이 더 낮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합계	매달 기숙사비(2만5천엔)+관리비(약 5천엔)+식비(약 2만엔)=약 5만엔	한달 최소 드는 금액입니다. 저는 일주일 중 3일 약 18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달 약 8만엔 정도 벌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충분히 넉넉하게 생활 가능했습니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도착하시면 간사이 공항 제 2터미널 앞에서 학교 관계자 분이 종이 들고 기다리고 계실거예요. 잘 발견해주세요. 저는 못 찾는 바람에 너무 기다리게 해드려서 되게 죄송했었습니다...

기숙사가 말이 기숙사지 정말 고시원 같은 느낌입니다. 방 별로 방 크기나 가구 등이 다소 다릅니다. 제가 들어간 방은 바닥이 뜯겨져 있어서 시트지 사다 붙이고, 침대도 없어서 그냥 매트리스를 구매했었습니다.

출석만 잘 하셔도 앵간하면 학점 인정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저는 현대사회학과 국제영어코스를 선택했었습니다. 관련 수업 레벨은 2학년 정도이므로 큰 무리없이 이해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취소돼서 못했지만 JLPT도 현지에서 시험 쳐보시길 바랍니다. 학교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조금만 공부해도 N1 따실 수 있습니다.

학교 동아리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일본인 친구들과 친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몇몇 외국에 관심있는 극소수를 제외하곤 절대 먼저 안다가오니 먼저 다가가세요.

너무 한국인 배척하지 마시고 같이 노세요. 저는 일본 친구들과 성격이 잘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적응 안되고 힘들 때 많이 도움 받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의 여파로 여러 지역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은 기회가 되시는 대로 많이 돌아다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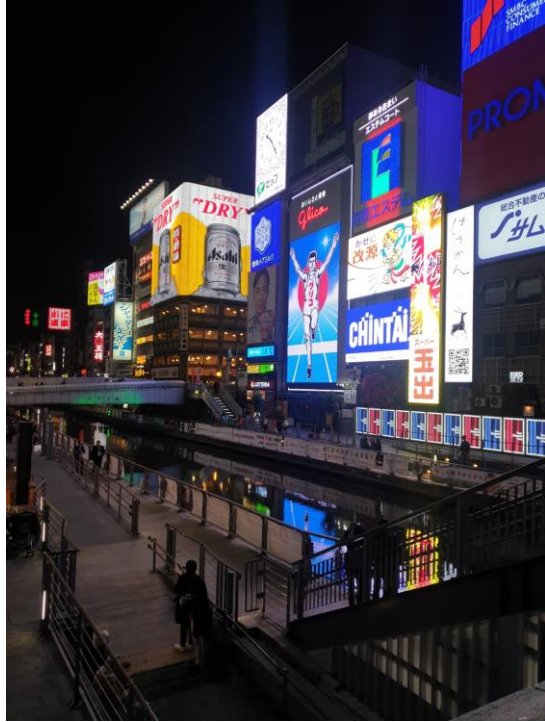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출발하기 전날에 긴장돼서 밤을 새어버린 바람에 비행기와 기숙사 가는 택시에서 기절하듯 잠든게 아직 새록새록 한데, 벌써 귀국해서 자가격리 중이네요. 일년이 참 야속하게 빠릅니다.

처음 왔을 때는 어떻게 그 실력으로 자신감이 넘쳤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 실력은 알바하면서 가장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력이 약간 늘고나니 일본어가 더 어렵게 느껴지네요. 알바처에서 친구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난바와 같은 시내에서 알바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본인 말고도 중국, 베트남, 대만 등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문화 차이 같은거 얘기하면 신기하고 재밌어요.

저는 일본 온지 한 개월쯤 됐을 때, 연말에 약간 현타가 왔었어요. 한국에서도 2년 정도 자취를 했었는데 타국에서 혼자 사는건 또 다르더라고요. 뭔가 유독 공허하고 여기까지 와서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는거 같아서 혼자 많이 자책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냥 '내가 이럴 수도 있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안좋은 생각에 빠져서 방에만 있지 말고 어느 나라든 친구들이나 좀 더 만날 걸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러지 마시고 놀러왔다 생각하고 가볍게 편한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난바거리와 구리코상



단지리 마츠리



시라하마(白浜) 온천마을



오사카성



이치란라멘



하마데라 공원